



프랑스 연출가 비네(오른쪽에서 둘째)가 '귀족놀이' 출연 국립극단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. 맨 오른쪽은 통역을 맡은 최준호 교수. 채승우기자 rainman@chosun.com

국립극장서 9월 공연 '귀족놀이' 연출하는 佛 비네氏

“세 비엥 세 비엥. 메...(C'est bien c'est bien. Mais...)”

국립극장 대연습실. “잘 하고 있지만...”이라는 프랑스어가 들리자 몰리에르의 ‘귀족놀이’ (9월 11~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)를 연습 중인 국립극단 배우들이 동작을 멈췄다.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네(Eric Vigner·44)가 배우들 쪽으로 걸어나왔다. 드라마투르기로 참여한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통역하느라 바빠질 차례다.

“소리와 움직임은 더 강조해야 합니다. 음악 선생은 평범한 대사라도 리드미컬하게 치고, 무용선생은 걸음걸이 하나에도 무용 동작을 실어야 해요. 그래야 주인공의 진실한 사랑이 더 살아납니다.”

직접 노래도 부르고 돼지 흉내까지 내면서 연기 지도를 하느라 연습은 푹푹 끊어졌다. ‘귀족놀이’는 부유한 평민 주르맹의 불륜(?)을 따라가는 작품. 주인공 주르맹 역을 맡은 이상직은 “몰리에르 작품이라고 하면 으레 계급 갈등을 기초로 한 풍자 코미디로 생각했는데, 비네가

“한국 배우들 감성이 그만”

희극성보다는 섬세한 내면 연기를 강조해 몰리에르를 새로 만나는 느낌”이라고 말했다.

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으로 이번 공연 연출을 맡은 비네는 “숙소에 들어가 TV를 켜니 온통 연애 이야기뿐이더라”며 “이 연극은 300년 전 이야기지만 지독한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을 소재”라고 말했다.

국립극단이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(AFFA)의 추천을 받은 비네를 초빙해 이뤄진 이 공연은 프랑스로도 이어진다. 한국 공연 후 10월 11~16일 프랑스 로리앙 극장으로 무대를

옮기는 것.

파리 국립연극원에서 연기와 연출을 배운 그는 몰리에르의 ‘아내들의 학교’, 이오네스코의 ‘코뿔소’, 소포클레스의 ‘안티고네’ 등 여러 갈래의 작품을 연출했다. “과도한 열정이 빛어내는 웃음을 그만큼 잘 다룬 이는 없기 때문에 특히 몰리에르를 좋아한다”는 그는 “몰리에르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예술가”라고 평했다.

한국 배우들은 어떻게 비쳤을까. 비네는 “자신을 열어놓는 작업 태도가 한국 배우들의 장점”이라며 “특히 이상직은 프랑스 배우들한테선 좀체 발견할 수 없는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누구에게나 동경하는 세계가 있다. 이 연극의 주르맹에겐 후작부인이 그렇다. 비네의 후작부인은 누구일까. “(잠시 고민하다) ‘연극’ 이죠. (몰리에르는 연극을 너무 좋아하다 무대에서 죽었다고 하니)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.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.” (02)2280-4115